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학회 참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1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7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에 참석해 의료질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FMEA(고장유형 영향분석)’를 통한 정맥염 예방활동, 수술 환자의 안전을 위한 ‘Time Out 시행율 향상 활동’, ‘수술 환자의 이송방법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과 환자불안 감소’, ‘방사선 장해 방어 기구 관리를 통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 위험 감소 활동’에 대해 구연발표를 했다. 또, ‘부적절한 구두처방의 효율적인 관리 활동’, ‘가족분만실 활성화를 통한 산모의 만족도 향상과 수익창출 활동’을 포스터 발표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부적절한 구두 처방의 효율적인 관리 활동’을 주제로 구체적인 개선활동 사례와 결과, 향후 계획 등 포스터를 발표해 인기상을 수상했다.

최준권 실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의료계 현황 및 최신지견을 습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각 병원의 우수하고 다양한 사례 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외과 객범석 교수, 조계사 ‘핑크리본 캠페인’ 행사 참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외과 객범석 교수는 최근 조계사에서 진행된 시민과 불자들의 유방암 의식 향상을 위한 행사인 ‘BTN붓다회와 함께하는 핑크리본 재즈콘서트’에 참여했다.

‘핑크리본 캠페인’은 건강이나 질환과 관련된 리본 캠페인으로 매년 유방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 본원에서는 객범석 교수를 비롯해 교직원 3명이 참석 했다. 또 이날 조계사 스님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유방암에 대한 자가 검진법과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알리며 검진프로그램 등을 홍보했다.

객범석 교수는 행사에서 “유방암은 여성암 중 2위로 증가속도가 아주 빠른 암이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조기 발견 시 전체 절제 없이 부분 절제로 보존술이 가능하여, 완치율이 또한 95% 이상 되는 예후가 좋은 암에 속한다.”며, 조기발견과 자가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화기 내과 임윤정 교수, WHO 국제 암 연구기관 초청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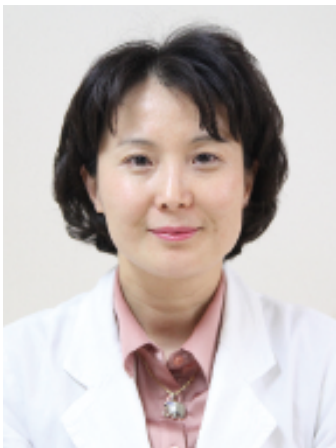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화기 내과 임윤정 교수는 최근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 연구기관(CENTRE INTERNATIONAL DE RECHERCHE SUR LE CANCER)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강연을 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보건기구의 암 연구진들이 전 세계 소화기암에 대한 통계와 추세, 암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참석한 세계보건기구의 암 연구진들은 현재 진행 중인 소화기 암의 역학 실험 연구내용에 대한 발표도 진행했다.

임윤정 교수는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소화기암(위암, 대장암, 췌장암)에 대한 통계와 그동안의 암 예방 전략과 성과 등을 중점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했다.

임 교수는 “향후 우리나라와 세계보건기구 연구진과의 소화기암 예방에 대한 교육 및 연구 교류를 통해 서로 협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교 여성개발원, 제8차 여성 불자 108인에 본원 교직원 3인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여성 불자 교직원 3명은 지난 24일 불교 여성개발원 주최 제8차 여성 불자 108인에 선정됐다.

여성 불자 108인은 불교 여성개발원에서 2년에 한 번 불자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경제와 교육, 연구, 언론, 정치, 문화예술 등 12개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불자를 대상으로 여성 불자를 선정한다.

이날 선정된 교직원은 혈액종양내과 김도연 교수, 남현미 사회복지사, 윤효영 병동간호팀장이다.

한편, 불교 여성개발원은 지난 2000년 창립, 여성 불자들의 권익 향상과 여성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로 오는 2020년까지 여성 불자들의 전용 공간인 불교 여성광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쾌적한 병원 환경을 위한 공기 질 관리 강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시설관리팀에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에 걸쳐 원내 안전한 공기 질 관리를 위한 측정 검사를 실시했다.

측정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 유기 화합물, 석면, 오존 등 총 9개 항목이다.

공기 질 측정 결과 9개 항목 모두 적합한 판정을 받았으며, 이번 결과는 깨끗한 실내 환경을 위해 주기적인 공기정화 설비관리 등 꾸준한 공기 질 관리를 시행한 결과이다.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병원 환경은 환자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병원 내 공기 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건강하고 쾌적한 진료 환경 만들기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